

충청남도 도어(道魚) 지정을 위한 사례연구

김 종 화

충남연구원 해양수산연구팀 책임연구원
sdart@cni.re.kr

본 연구는 충남 서해안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의 도어 후보군을 제안하여 예시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도어 지정을 위한 프로세스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지역 상징 수산물의 사례
4. 도어 후보군 제안 및 평가
5. 도어지정 프로세스 및 활용방안
6. 결론

요약

- 본 연구는 충남의 서해안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어 후보군을 제안하는 한편, 도어 지정을 위한 프로세스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충남의 도어(道魚) 지정을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상징물의 선정 기준을 파악하고, 현재 지역 상징 수산물을 보유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 봄
- 또 충남 수산물 중 대표적인 해면어종(어류)인 조피볼락, 멸치, 전어와, 내수면어종인 감돌고기, 흰수마자를 도어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선정기준에 맞게 평가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면 및 내수면 어종(5종)은 도어 선정에 참고가 되기 위한 예시적 평가이므로 향후 후보군에 어종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범위를 어류, 패류, 갑각류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음
- 향후 충남의 도어 선정을 위한 절차는 지역 수산업, 물환경, 수중생태, 어류생태, 디자인 등 각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어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것을 도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01 서론

- 충청남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 수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3농혁신 “4대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임
 - 4대 명품 수산물은 김, 바지락, 해삼, 갯벌참굴로서 지역을 대표하고 성장가능성이 큰 품목을 선정하였으나, 그 자체로서 지역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안 시·군별로 주력 품목이 상이함
 - 김과 바지락은 본래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은 품목이었으며, 해삼은 경남과 경쟁하는 품목이고, 갯벌참굴은 원활한 종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이 부진함
- 4대 명품 수산물 외에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꽃게, 우럭, 멸치, 실치, 갑오징어, 주꾸미, 낙지 등 다양하며, 대부분이 충남 서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의 타 시도(인천, 경기, 전북), 남해(전남, 경남, 부산, 울산), 동해(경북, 강원)와 생선품목이 중복되어 충남을 대표하는 수산물을 특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음
 - 충남 수산물은 최소 100종 이상이고, 과거에는 생산되지 않았던 멸치, 살오징어, 갈치 등도 어획되고 있음
 - 갯벌을 활용한 마을어업, 가두리 양식어업, 근해안강만·개량안강망·연안자망 등 어선어업 등 다양한 어업형태가 공존하고 있음
- 충남은 해안선(1,242km), 갯벌(357km²), 유인도서(33개) 등 해양자원이 풍부하여 수도권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이자 중국과의 인접성으로 향후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관광 콘텐츠가 부족함
 - 보령 머드, 태안 꽃게 등 시·군별로 지역성을 나타내는 콘텐츠가 있으나, 충남도 전체를 아

를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충남은 다양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상징 수산물을 선정하여 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으로 충남 해양수산의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 전국 3위의 수산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의 위상에 걸맞게 충남도민의 기상과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지역 수산물 상징을 설정하여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道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함
- 이에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대표성이 있는 품종을 도어(道魚)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한 캐릭터 및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수산물 소비촉진, 해양정책 홍보 등에 활용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서해안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어 후보군을 제안하는 한편, 도어 지정을 위한 프로세스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2

선행연구 검토

- 지역 상징 수산물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정 수산물로 정의가 가능함
 - 도어(道魚)는 지역 상징 수산물로서 충남도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수산물로 정의가 가능함
 - 여기서 어(魚)는 반드시 어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패류, 해조류, 갑각류까지 포괄할 수 있음
 - 즉 도어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 품종으로서 대표성을 띤 지역 캐릭터로 발전이 가능함
- 지역 상징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몇 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미숙 외(2011)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꿈을 상징으로 하는 캐릭터인 쿠마몬을 통하여 자자체의 디자인 통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특화사업의 캐릭터 발굴과 운영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음
 - 정치영 외(2011)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개발하여 운영해 온 각종 상징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상징물이 해당 지역의 성격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는 지를 고찰하였음
 - 박종태(2011)는 경북에서 사용되는 지역 상징물의 조형 분석과 이미지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지역 홍보에 효과 높은 상징물(캐릭터)을 제시하였음
- 선행연구 중 정치영 외(2011)에 의하면 지역의 상징 동식물은 지역성이 반영되어 있는 상징물을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음
 - 지역성이란 해당 지역이 가진 종합적인 개성으로 “지역적 성격 또는 특성”을 뜻함
 - 지역성은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사상이고, 지형·기후·토양 등 자연요소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형성된 것임

- 정치영 외(2011)에 의한 상징 동식물의 지역성 반영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에 서식하고 번성하는 동식물
 - 지역 고유한 특산종이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식물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지정건수와 분포빈도가 월등히 높은 동식물
 -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등 인문요소와 관련이 깊은 동식물
 - 형태적·생태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가 지자체의 지향하는 방향과의 부합하는 동식물
 -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동식물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상징물로서 조건을 갖춘 수산물을 도어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고유성 :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에 서식하고 번성하는 수산물
 - ※ 지역의 고유한 특산종이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식물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지정건수와 분포빈도가 월등히 높을수록 선정 가능
 - 연관성 :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수산업 등 인문학적 요소와 관련이 깊은 수산물
 - 차별성 : 타 지역과의 차별적 요인을 가진 지역 수산물
 - 상징성 : 형태·생태적 특성 및 상징적 의미가 해당 지자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수산물
 - 대표성 : 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가 대내·외적으로 높은 수산물


03

지역 상징 수산물의 사례

1. 지역 상징 수산물 사례소개

- 현재 수산물을 지역 상징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인터넷 및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검색해 본 결과 약 10여 곳의 지자체에서 수산물을 상징으로 지정하였음
 - 부산광역시 : 고등어
 - 경북 영덕군 : 황금은어
 - 경상남도 : 불락, 거제시 : 대구, 남해군 : 감성돔
 - 전라북도 부안군 : 부안종개
 - 전라남도 : 참돔, 구례군 : 은어, 영광군 : 참조기, 함평군 : 뱀장어
 - 대전광역시 : 감돌고기(민물)
 - 충청남도 보령시 : 참돔, 금산군 : 감돌고기(민물)
- 각 지자체의 대표 상징 수산물은 대부분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산물 또는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수산업 관점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적 관점으로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를 선정함으로써 지역민의 기질과 자부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선정함
 - 대전시 및 금산군의 감돌고기, 전북 부안군의 부안종개와 같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류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표 1] 도어지정 현황 (부산, 경북, 경남)

지역		어종	사 진	내 용
부산광역시		고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2011년 7월 『Dynamic, Powerful, Speedy』 태평양을 누비는 강한 힘으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약하는 해양수산도시 부산 상징 부산은 전국 고등어 생산유통량의 84%를 점하고 있으며, 매년 부산 고등어 축제 개최
경상북도	영덕군	황금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2008년 8월 영덕군 전역에 서식하며 아가미 밑에 진한 황금색 띠가 있어 다른 은어와는 구별 가능 회로 먹었을 때 수박향 또는 오이향이 나며, 예로부터 수중군자, 청류의 귀공자로 불리며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던 진귀한 특산물로 오랜 세월 영덕을 대표하는 어종
	경상남도	볼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1997년 5월 볼락의 도약하는 모습은 도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 가는 경남 수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꿈을 나타냄
경상남도	거제시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2004년 9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바다를 지키는 거제시민의 근면 성실성과 진취적 기상을 나타냄
	남해군	감성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2011 .11.22 남해군 전역에 분포하여 낚시객이 선호하는 어종이면서 남해안 청정해역에 서식하고 생김새가 아름다움 산란기는 3~7월로서 바닥이 자갈 펄 모래 등으로 해저지형이 비교적 복잡한 곳에 산란 몸은 타원형으로 측편하며, 주둥이는 약간 돌출, 여금니가 발달됨 1년생은 대부분 수컷이며 2~3년생은 암수한몸이고, 비늘은 빗비늘이며, 두 눈 사이와 아가미 뚜껑 아래 부분에 비늘이 없음




자료 1.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
 2. 영덕군청 「<http://www.yd.go.kr>」
 3. 경남도청 「<http://www.gyeongnam.go.kr>」
 4. 거제시청 「<http://www.geoje.go.kr>」
 5. 남해군청 「<http://www.namhae.go.kr>」

[표 2] 도어지정 현황 (전북, 전남)

지역		어종	사 진	내 용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증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안의 백천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희귀종으로 대한민국에서만 서식 깨끗한 자연에 대한 부안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상징
	전라남도	참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 수명과 힘찬 기상, 맑고 깨끗한 이미지의 의미로 선정 한국, 중국, 일본, 하와이 등 지역의 수심 30~150m의 암초지대에서 서식 산란기간 4~7월경으로 30~90회에 걸쳐 산란
전라남도	구례	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례의 청정자연과 주민의 깨끗한 이미지 상징 물이 맑고 깨끗한 1급수인 섬진강에 서식하며, 태어난 하천으로 올라와 일생을 보내는 어종
	영광군	참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2008년 10월 바닷가라는 입지 조건과 “굴비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굴비의 원료가 되는 참조기 선정 참조기는 산란을 위해 동중국 해역에서부터 서해안으로 회유를 하며, 4월 말 무렵 영광 칠산바다를 지나고, 이때가 가장 알이 충실하고 황금빛 윤기가 남
	함평군	뱀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2009년 10월 함평군은 최대 생산규모의 담수어 첨단양식단지가 있는 전국 제1의 뱀장어 생산지 바다에서 산란하고 부화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회유성 어류로 불굴의 의지, 건강, 행복, 끈기와 인내심, 풍요로움과 다복 등을 상징하여 군민 정신과 부합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하고 부화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와 생활하며 암컷 1마리가 700만 ~ 1천300만개의 알을 낳음

- 자료 1. 홍정규, 굴비의 고장 영광군 새 군어는 ‘참조기’, 연합뉴스, 2008.10.16.일자.
 2. 맹대환, 함평군 ‘뱀장어’ 군어로 지정, 뉴시스, 2009.10.28.일자.
 3. 영광군청 「<http://www.yeonggwang.go.kr>」
 4. 전남도청 「<http://www.jeonnam.go.kr>」
 5. 구례군청 「<http://www.gurye.go.kr>」
 6. 함평군청 「<https://www.hampyeong.go.kr>」
 7. 부안군청 「<http://www.buan.go.kr>」

[표 3] 도어지정 현황 (대전, 충남)

지역	어종	사 진	내 용
대전광역시	감돌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2014년 2월• 대전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종으로 금강 및 만경강에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탁란을 통해 산란하는 특이한 습성을 지님• 유등천 상류(침산동 점촌보~태평동 유등교)에 서식하고 개체수는 적음• 과거에는 만경강, 웅천천에서 서식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음• 대전 대표 어류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고, 깍지 산란장에 침입하여 탁란을 함
충청남도	보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년월 : 2005년 1월• 도미의 강인한 이미지 도출로 보령시미의 진취적 기상 표현, 친근감과 해양관광 보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킴• 등이 높고 강한 등지느러미 가시를 가진 도미의 특성을 바탕으로 밝고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 도미의 강인한 이미지를 도출하여 보령시민의 진취적 기상 표현• 암수의 친근감을 의인화하여 관광보령의 이미지 부각• 해양수산의 중요성 인식 및 수산물 소비촉진 기여
	금산군	감돌고기	

주 : 깃대종이란 환경보전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복원의 증거가 되는 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 동식물종(다음백과)

자료 1. 대전광역시청 「<http://www.daejeon.go.kr>」

2. 보령시청 「<http://www.brcn.go.kr>」

3. 네이버 블로그 금산인삼축제 「<http://blog.naver.com>」

4. 네이버 블로그 제주생선요리전문점 「<https://blog.naver.com>」

2. 타 지역 상징 수산물의 시사점

- 타 지역의 상징 수산물의 사례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고유성, 연관성, 차별성, 상징성, 대표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고유성

- 타 지자체의 상징물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서식하고 번성하는 수산물
- 특히 부안종개, 감돌고기는 해당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가치가 높음
- 영덕군의 황금은어는 지역 전역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을 군어(郡魚)로 선정

② 연관성

- 대전광역시와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을 제외하고, 연안의 지자체는 지역 수산업의 상징이 되는 수산물을 지역 상징으로 선정
- 특히 부산시는 지역에서 생산유통량이 80%가 넘는 고등어를 시어(市魚)로 선정하고, 영광군은 지역 특산물인 굴비의 원료가 되는 참조기를 군어(郡魚)로 선정
- 함평군은 침단양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유로 뱀장어를 군어(郡魚)로 선정

③ 차별성

-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수산물이 차별적이지 않아 차별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음
- 그러나 부산 고등어, 부안종개, 영광 참조기, 대전 감돌고기 등은 생태적, 인문학적 요소로 차별성 부여가 가능함

④ 상징성

- 대부분의 지역 상징 수산물은 지역 주민의 기상 및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징성으로 표현함
- 부산 고등어, 경남 불락, 보령 도미 등 수산물의 형태 및 이미지를 지역민의 성질 및 특성과 연결하여 부합성 강조

⑤ 대표성

- 대부분 지역 상징 수산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우나, 부산 고등어, 영광 굴비 등은 인문학적 요소로 대표성이 충분함
- 특히 부산시는 캐릭터 상품 및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CI 및 BI의 인지도를 높여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있음

04 도어 후보군 제안 및 평가

1. 도어(道魚) 선정방향

- 도어(道魚) 선정의 기본방향

- 충남의 생태환경에 적응하고 서식하면 번성하고 있는 수산물
- 충남의 역사문화, 수산업 등 인문학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깊은 수산물
- 타 지역과 차별적 요소를 갖는 충남만의 독창적인 수산물
- 충남인의 기상과 이미지에 부합하고, 이를 배가시킬 수 있는 수산물
- 지역적 인지도를 대변하고 표현할 수 있는 대표 수산물
- 가능한 어류이어야 하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갑각류, 패류 등도 고려 가능¹⁾

- 충남 주요 수산물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고 어류 중 조피볼락, 멸치, 전어를 후보군으로 설정이 가능함

- 전국대비 충남의 생산량 비율이 높은 품종은 바지락, 해삼, 꽃게, 주꾸미 등으로 어류보다는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의 비중이 높음
- 어류 중에서는 멸치, 조피볼락의 생산량이 많고, 넙치와 전어도 일정량 이상 생산하고 있음
- 서해안 어종의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 조피볼락, 멸치, 전어, 꽃게, 주꾸미 등이 도어 후보군이 될 수 있으나, 가능한 어류이어야 함을 조피볼락, 멸치, 전어를 후보군으로 선정함

1) 그 이유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면 모두 어류를 지역 상징 수산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 생태학적 측면에서 충남에 서식하는 어류로서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멸종위기종을 도어(道魚)로 선정 가능함
 - 감돌고기 : 멸종위기종 1급으로 금강 상류인 금산군 일대에 많이 서식하며, 보령 웅천천에서도 복원개체가 서식
 - 흰수마자 : 멸종위기종 1급으로 청양 지천, 공주 유구천에 서식하며, 최근 4대강사업으로 금강 본류 수계 변화로 개체수 감소
 - 미호종개, 꾸구리, 돌상어 : 멸종위기종으로 금강 상류인 금산과 금강 지천에서 서식
 - 이 중, 특정 지역이 아닌 도내 여러 곳에서 분포하여 서식하는 감돌고기와 흰수마자를 도어 후보군으로 선정함

[표 4] 충남 주요 수산물 현황 (2014)

품목명	생산량(톤)			생산금액(백만원)		
	전국	충남	전국 대비 충남	전국	충남	전국 대비 충남
바지락	20,127	10,223	50.8%	55,180	27,107	49.1%
굴	303,731	9,876	3.3%	225,125	13,552	6.0%
김	397,872	38,558	9.7%	308,377	27,085	8.8%
해삼	2,148	614	28.6%	27,606	9,091	32.9%
전복	9,147	76	0.9%	309,579	3,153	1.0%
꽃게	25,661	10,789	42.0%	261,206	111,883	42.8%
주꾸미	2,530	1,531	60.5%	47,143	30,008	63.7%
낙지	5,328	381	7.15%	154,702	10,045	6.5%
멸치	220,954	26,824	12.1%	353,950	60,721	17.2%
넙치	46,196	1,600	3.5%	443,788	13,479	3.0%
조피볼락	26,978	3,176	11.8%	226,915	31,716	14.0%
전어	8,875	463	5.2%	24,088	3,076	12.8%


원자료 :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자료 : 김종화(2016)

2. 도어(道魚) 후보군

● 조피볼락

① 어류의 특징

사 진	생태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길이가 30cm가량인 바닷물고기로 볼락과 비슷함 • 위턱의 상부를 덮는 3개의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며 눈 아래에는 2개의 줄무늬가 있음 • 몸은 회갈색 바탕에 검은 점이 흩어져 있음 • 바위가 많고 수심이 낮은 연안에 서식하며 주로 무척추동물과 어류를 먹고 살며, 12-2월에 수정하여 3-4월에 새끼를 낳는 태생임 •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며, 일본 전 해안, 중국 등에 분포함 • 대량으로 양식하며 회, 구이, 건어물, 탕 등의 다양한 요리로 이용되고, 횡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어류임 • 넙치와 함께 대표적인 양식 어종이며 조피볼락이라는 이름보다 주로 '우럭' 이라 부르며, 매년 많은 양을 방류하여 자원 양이 매우 풍부함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조피볼락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정보,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SPECIES KOREA))

② 도어(道魚) 선정 평가

- 고유성 : 서해안에서 많이 서식하고, 특히 충남에서 생산량이 많아 충분한 고유성을 확보함
- 연관성 : 우럭이라고 불리면서 횡집으로 많이 이용되고, 예부터 충남에서는 우럭젓국이라는 향토요리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연관성을 확보함
- 차별성 : 우리나라 삼면에 서식하고 대량 양식도 이루어지고 있어 다소 차별성이 떨어짐. 또 경남에서 먼저 유사한 “볼락” 을 도어로 선정하여 차별성에서는 다소 약함
- 상징성 : 해양수산 잠재력이 높은 충남도민의 진취적인 모습과 세계로 도전하는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합함
- 대표성 : 충남을 대표하는 수산물로서 인지도는 약하나, 서해안의 대표 낚시어종이자 횡집으로 이용되기에 친근감이 강함

● 멸치

① 어류의 특징

사 진	생태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골어류 청어목 멸치과에 속하는 작은 물고기로 최대 체장 15cm까지 자라며 수명은 1년 반 정도임 • 몸의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고,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 상당히 작고, 양턱에는 작은 이빨이 있음 • 몸 등 쪽은 짙은 청색이며, 중앙과 배 쪽은 은색을 띰 •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 먹이로 삼는 멸치는 생태계 먹이사슬 속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 개체 수가 가장 많은 어종임 • 전 세계적으로는 8종이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종들은 연안에 서식함 • 우리나라 연안으로 회유하는 종들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연근해 따뜻한 바다에 분포하는 종으로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산란함 • 계절상 봄 멸치가 유명한 것은 겨울에 비교적 따뜻한 외해에 머물다가 봄이 되면 연안으로 몰려오는데 체내에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임 • 난류성인 멸치는 특성상 비교적 수온이 높은 수면 바로 아래에 떼를 지어 다니며, 최근에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에서도 많은 양이 어획됨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멸치 - 칼슘의 대명사 (이미지 사이언스)

② 도어(道魚) 선정 평가

- 고유성 : 과거에는 남해안에서 주로 어획되었으나, 최근에는 서해안에서도 많이 생산되어 서해안 멸치로서 고유성을 확보함
- 연관성 : 과거부터 밥반찬, 도시락반찬 등으로 이용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친숙함
- 차별성 : 예부터 경남 남해, 통영 등이 산지로 인식되어 차별성이 떨어지고, 과거 통영에서는 시어로 지정된 경력이 있음
- 상징성 : 작은 물고기들이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역동적인 충남을 대변하기 좋음
- 대표성 : 보령, 서천 등에서 많이 생산되나, 아직까지는 경남 남해, 부산 기장 등이 산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 전어

① 어류의 특징

사 진	생태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많이 분포함 • 근해성 물고기로서 여름 동안은 외양에서 지내고 10월경부터 이듬해 3월 경 사이에 내만이나 하구의 기수역에 내유함 • 몸빛은 등은 검푸르고 배는 은백색이고, 등 쪽에는 갈색 반점이 있고 옆구리 앞쪽에 갈색의 큰 반점이 하나 있음 • 등지느러미의 끝 연조(軟條)가 현저히 길고 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꼬리지느러미는 황색을 띠고 있음 • 몸길이는 15~31cm 정도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전어 [錢魚]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② 도어(道魚) 선정 평가

- 고유성 :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여 서해안 전어로서 충분한 고유성을 확보함
- 연관성 : “전어 굽는 냄새에 집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풍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차별성 : 우리나라 전역에서 어획되어 차별성을 떨어지나, 그 중 서해안 전어의 맛이 가장 일품이라 하여 차별성을 다소 보유함
- 상징성 : 전어를 대상으로 특별히 대비되는 상징성이 없어 표현 불가
- 대표성 : 전어는 특별한 산지가 없이 전국 연안에서 생산되나, 특히 서해안 전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대표성 다소 확보됨

● 감돌고기

① 어류의 특징

사 진	생태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특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강, 만경강, 웅천천 등에서만 볼 수 있는 민물고기 • 1980년 이후 분포 지역이 줄어들고 개체 수가 급감하여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했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음 • 몸길이가 7~10cm인 작은 민물고기이고, 태어나서 1년이면 몸길이가 5~7cm에 이르고, 2년이면 7~9cm, 3년이면 10cm 이상까지 자람 • 몸은 검은 바탕으로 옆면에는 구름 모양의 흑갈색 반점들이 있고, 몸 중앙의 옆줄을 따라서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선명한 흑갈색의 줄무늬가 있음 • 등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에 2개의 검은 띠가 있음 • 감돌고기는 물살이 빠르고 바닥이 큰 돌이나 자갈로 된 하천 중·상류의 여울에서 사는데, 수심이 30~150cm인 곳에서 10마리 이상의 단위로 무리를 지어 삼 • 2급수 이상의 비교적 맑은 물에서만 볼 수 있고, 잡식성으로 돌에 붙은 이끼 같은 조류(藻類)도 먹지만, 애벌레 시기를 물속에서 보내는 하루살이, 날도래, 파리 무리에 속한 수서곤충의 애벌레를 즐겨 먹음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감돌고기 [Black shinner] - 남의 등지에 알을 낳는 물고기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② 도어(道魚) 선정 평가

- 고유성 : 금강에 서식하는 개체로서 충분한 고유성을 보유함
- 연관성 : 금강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이나, 특별한 인문사회적 연관성임 부족함
- 차별성 :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로서는 차별성이 있으나, 이미 대전시와 금산군에서 깃대종 및 군어로 선정됨
- 상징성 : 1급수에만 사는 어종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충남인을 표현하기 좋음
- 대표성 : 최근에는 만경강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금강 및 웅천천에서만 증가하는 우점종으로 충분한 대표성 확보

● 흰수마자

① 어류의 특징

사 진	생태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운 모래로 이뤄진 하천의 바닥에서 살아가는 민물고기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 수계에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임 • 긴 입수염이 흰색이라서 흰 수염의 민물고기라는 뜻의 흰수마자로 불림 • 야행성이며 깔따구 같은 수서곤충을 주로 먹음 • 2급수 이상 깨끗한 곳에서 서식하며, 오염과 물 환경 변화에 취약함 • 4대강 사업과 각종 하천 개발로 서식지가 훼손되어 현재는 청양 지천, 공주 유구천, 내성천 사미천 등에서만 적은 수가 관찰됨 • 흰수마자는 몸길이가 6~10cm로 작은 편이며, 체형은 길고 머리는 위아래로 납작하며 배 쪽은 편평함 • 눈은 비교적 크고 머리 옆면에 있으며 등 쪽으로 치우쳐있음 • 등 쪽은 어두운 갈색을 띠고 배 쪽은 밝은 갈색을 나타내고, 몸의 중앙에는 눈의 동공 크기보다 약간 작은 검은 점이 6~8개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등 쪽에도 몇 개의 검은 점이 있음 • 옆줄(側線, 물의 흐름이나 온도 등을 감지하는 물고기의 몸통 옆에 작은 구멍이 촘촘하게 이어진 형태의 감각기관)은 완전하고 앞쪽에서는 배 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고 뒷부분은 직선임 • 양쪽 가슴지느러미가 시작되는 부분의 배에는 비늘이 없고, 모든 지느러미에 무늬가 없으며 지느러미살의 막은 투명함 • 전체적으로 흰수마자는 하천 바닥에서 살아가기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음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흰수마자 - 깨끗한 모래 하천에 살아가는 흰 수염의 물고기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② 도어(道魚) 선정 평가

- 고유성 : 청양 지천, 공주 유구천에 서식하는 개체로서 충분한 고유성을 보유함
- 연관성 : 금강 생태계를 대표하는 갯대종이나, 특별한 인문사회적 연관성이 부족함
- 차별성 :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로서 차별성이 있음
- 상징성 : 1급수에만 사는 어종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충남인을 표현하기 좋음
- 대표성 : 최근에는 청양 지천, 공주 유구천 등 충남의 하천에서 자생하는 개체이나, 일반인의 인지도는 매우 약함

3. 도어(道魚) 후보군 평가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상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서식종에 대한 후보군 평가를 하면 조피볼락, 감돌고기, 흰수마자의 점수가 가장 높음
 - 조피볼락는 해면어종으로 고유성, 연관성, 상징성에서 적합하여 7점
 - 감돌고기는 지역 하천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으로 고유성, 상징성, 대표성이 적합하여 7점
 - 흰수마자는 지역 하천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으로 고유성, 차별성, 상징성이 적합하여 7점
 - 멸치는 해면어종으로 연관성, 상징성이 적합하여 5점
 - 전어는 해면어종으로 고유성, 연관성이 적합하여 4점
- 해면어종 중에서는 조피볼락이 가장 높으나, 멸치와 전어도 근사치의 점수를 확보하고 있음
 - 서해안에서는 다양한 어종이 골고루 어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해안, 동해안 어종도 어획되는 바, 특정 어종을 적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조피볼락, 멸치, 전어는 지역에서 비교적 생산량이 높은 어종으로 지역을 대표하기에 충분함
- 내수면어종 중에서는 지역 하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감돌고기, 흰수마자 모두 7점을 확보하였으나 지역 수산업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감돌고기와 흰수마자는 환경적 관점의 깃대종으로 가치가 충분하나, 지역 수산업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5] 도어 후보군 평가(안)

어종	총점	고유성	연관성	차별성	상징성	대표성
조피볼락	7	○	○		○	△
멸치	5	△	○		○	
전어	6	○	○	△		△
감돌고기	7	○		△	○	○
흰수마자	7	○		○	○	△

주 : ○ 2점, △ 1 점

05

도어지정 프로세스 및 활용방안

1. 도어(道魚)지정 프로세스

- 도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취합하여 민주적 방법 및 절차로 추진해야 함

① 도어 후보군 지정

- 1차 도어 후보군 지정을 위하여 지역 수산업 관계자(어업인) 및 전문가, 물환경 및 수중 생태 관계자 및 전문가, 어류 전문가, 디자인 및 캐릭터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도어 후보군 선정
- ‘(가칭) 충청남도 도어선정위원회’를 출범하여 지속적인 협의 및 회의를 통하여 도어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도어 후보군은 충남도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설정하되 약 3~5개 정도 선정

② 도어 후보군 조사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양식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방침 및 방법 설정
- 전문가 자문단을 통하여 도어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사항목 설정
- 전문가 인터뷰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도어 후보군 어종의 환경·생태학적 특성, 인문·사회학적 요인, 지역대표 상징성,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추진

③ 도민 설문조사

- 후보군 중에 도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으로 도민 설문조사 실시
- 도어 후보군 어종에 대한 조사자료 공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이해도 제고
- 최종적으로 후보군 중 가장 높은 표를 얻은 어종을 1순위로 지정하여 ‘(가칭) 충청남도 도어선정위원회’에 상정

④ 최종 결정 및 도어 선정

- ‘(가칭) 충청남도 도어선정위원회’에서 1순위 후보 어종을 협의 및 토론을 통하여 도어로 최종 결정 가능
- ‘(가칭) 충청남도 도어선정위원회’에서 1순위 후보 어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할 경우, 투표를 통하여 찬반을 결정하고, 반대가 다수일 경우 2순위 또는 3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2. 도어(道魚) 활용방안

- 도어가 지정되면 CI 및 BI 캐릭터 상품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통하여 충남 수산업을 알리는 매개체로 활용이 필요함
- 부산시의 시어(고등어)는 부산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캐리커처를 개발하여 형상화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수첩, 손수건, 인형, 편지지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 개발



[그림 1] 부산 시어인 고등어를 형상화한 상품

- 지정된 도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통하여 도어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 부산시와 부산 서구는 시어(市魚)와 구어(區魚)를 활용한 지역수산물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을 운영하여 “부산맛꼬”라는 지역브랜드를 개발함²⁾
 - 2015년 12월에 산·학·연·관 네트워크로 (사단법인)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을 발족하였고, 국비를 지원받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부산 서구는 34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연면적 약 660㎡ 규모의 공동이용시설을 완공할 계획임³⁾
 - 또 적극적인 R&D 지원을 통해 냉동필렛제품, 간편 조리식품, 가정식 대체식품(HMR)과 같은 가공식품 및 반려동물 사료 등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계획임⁴⁾
 - 그리고 공동 CI 및 BI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부산 고등어를 브랜드화하고, 부산 시어 및 부산 서구어 이미지 확대를 통해 관광상품화 하는 홍보·마케팅 전략도 추진할 계획임⁵⁾
 - 이를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주도형 비즈니스 체계 구축을 위한 자회사 설립, 사업단의 경영 및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⁶⁾



[그림 2] 부산고등어전략사업단의 수산가공식품

2) 부산시의 시어와 부산 서구의 구어는 고등어로 동일함

3) 윤인하, 부산 고등어, 고부가 전략 식품으로 키운다, BNN, 2017.3.20.일자

4) 윤인하, 부산 고등어, 고부가 전략 식품으로 키운다, BNN, 2017.3.20.일자

5) 윤인하, 부산 고등어, 고부가 전략 식품으로 키운다, BNN, 2017.3.20.일자

6) 윤인하, 부산 고등어, 고부가 전략 식품으로 키운다, BNN, 2017.3.20.일자

- 또한 부산시와 부산 서구는 고등어를 테마로 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등 고등어의 주된 생산·유통·가공의 중심지로서 부산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림 2] 부산고등어축제 모습

자료 : 부산고등어축제 「<https://www.busangde.co.kr>」

06 결 론

- 본 연구는 충남의 도어(道魚) 지정을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상징물의 선정 기준을 파악하고, 현재 지역 상징 수산물을 보유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함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선정기준은 고유성, 연관성, 차별성, 상징성, 대표성임
 - 현재 지역 상징 수산물을 지자체는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 또는 지역 하천에서 자생하는 희귀종을 지역 상징 수산물로 지정
- 또 본 연구는 충남 수산물 중 대표적인 해면어종(어류)인 조피볼락, 멸치, 전어와, 내수면어종인 감돌고기, 흰수마자를 도어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선정기준에 맞게 평가하였음
 - 그 결과, 해면어종은 조피볼락 7점, 멸치 5점, 전어 6점으로 평가되었고, 내수면어종을 감돌고기 7점, 흰수마자 7점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면 및 내수면 어종(5종)은 도어 선정에 참고가 되기 위한 예시적 평가 지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후보군에 어종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 또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어류에 한정하지 않고 패류, 갑각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음
- 향후 충남의 도어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 수산업, 물환경, 수중생태, 어류생태, 디자인 등 각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어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미숙·최성운, 2017, “지역 캐릭터 디자인 통합 사례 연구 : 일본 구마모토현 캐릭터 ‘구마몬’ 을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49,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103-113.

김종화, 2016,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산업 발전방안 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박종태, 2011, 경상북도 지역의 상징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치영·김미숙, 2011, “지방자치단체 상징물의 지역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1), 한국도시지리학회: 17-34.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

대전광역시청 「<http://www.daejeon.go.kr>」

전남도청 「<http://www.jeonnam.go.kr>」

경남도청 「<http://www.gyeongnam.go.kr>」

거제시청 「<http://www.geoje.go.kr>」

보령시청 「<http://www.brcn.go.kr>」

영덕군청 「<http://www.yd.go.kr>」

남해군청 「<http://www.namhae.go.kr>」

영광군청 「<http://www.yeonggwang.go.kr>」

구례군청 「<http://www.gurye.go.kr>」

함평군청 「<https://www.hampyeong.go.kr>」

부안군청 「<http://www.buan.go.kr>」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부산고등어축제 「<https://www.busangde.co.kr>」

맹대환, 함평군 ‘뱀장어’ 군어로 지정, 뉴시스, 2009.10.28.일자.

윤인하, 부산 고등어, 고부가 전략 식품으로 키운다, BNN, 2017.3.20.일자

홍정규, 굴비의 고장 영광군 새 군어는 ‘참조기’, 연합뉴스, 2008.10.16.일자.

네이버 블로그, 금산인삼축제 「<http://blog.naver.com>」

네이버 블로그, 제주생선요리전문점 「<http://blog.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조피볼락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정보,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SPECIES KOREA))

네이버 지식백과, 멸치 - 칼슘의 대명사 (이미지 사이언스)

네이버 지식백과, 전어 [錢魚]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감돌고기 [Black shinner] - 남의 등지에 알을 낳는 물고기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네이버 지식백과, 흰수마자 - 깨끗한 모래 하천에 살아가는 흰 수염의 물고기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다음백과, 갯대중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rkb04a1006>」